



주 제:	“유혹을 이기려면?”	“사순 제 1 주일” (다해)	2007년 2월 25일
복음 묵상:	루가 4,1-13	신명 26,4-10	로마 10,8-13

복음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 40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으셨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일의 유혹기간은 예수님의 한평생을 말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한평생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유혹을 당하셨고, 그 유혹과 끊임없이 싸웠고 결국엔 이겨내셨음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나약한 존재였지만 사랑이란 칼과, 기도라는 방패를 들고 악의 세력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이기신 분이 아니라 바로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인간을 위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도 연약한 나, 바로 나를 위해, 꿈과 희망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광야처럼 삭막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유혹들, 나의 약함과 모자람에 당당히 맞서며, 주님 부활의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군중 노중래 신부님 강론중에서)

합동 기도회		2007년 2월 20(화요일)	
진행:	박 소피아	음악:	민 바오로
		참가 가족:	18 명

화요일 찬미 미사후 간단한 합동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양바오로 신부님 가르침:

- *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느님과 의 초점 맞추기가 중요함
- * 하느님과의 초점을 잘 맞추었을때에 기도, 사랑의 실천, 모임, 봉사 생활도 잘 할수가 있다.
- * 하느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야 함, 그리하여, 성령의 이끄심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
예: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난의 고통 바로 직전인 게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소서..."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렸음.
- * 내가 맡았던 직무를 다 마쳤다고 그만두지않고 꾸준히 봉사라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함.
- * 기도할때에도 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
- * 우리는 일반생활에서도 다른이의 눈치보다는 하느님의 눈치를 보아야 함.
- * 모든 신심모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 * 혼자있는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하느님과 의 하나 되려는 마음으로 식별 해야함

예언 말씀

- +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것이다...
- +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 + 나는 이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세상을 이겼다.
- + 항상 내곁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도와 줄것이다.

알림:

- 3월 둘째 주에 수요과 평화기도회 합동으로 수요일날 치유예절이 있겠습니다.
- (치유예절을 준비하는 뜻에서 고백성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들의 소식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재료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때문입니다.(Kimjiman@comcast.net)



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 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사십 일이 지났을 때에는 몹시 허기졌다. 그 때에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하고 꾀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 주며 다시 말하였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줄 수 있소.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 갔다.

1분 명상

“잘못했어, 용서해줘. 응?”

- 앤디 앤드루스의 《용서에 관한 짧은 필름》 중에서 -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먼저
용서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 안의 화가 녹아 내리고,
상처와 모욕이 씻겨집니다.
용서의 최고 수혜자는 상대방보다 먼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길이며
또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순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고,
내가 자유로워져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 (로마 10,8)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